

지지율 급락 막고 친정체제 구축 '다목적 카드'

이완구 총리 지명 배경

신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완구 전 원내대표는 40년 공직 생활을 거치며 정치는 물론 경제·치안·지방행정 분야까지 섭렵한 공직자 출신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추대로 원내대표 자리에 올라 7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야당의 원내대표가 교체되는 진통 속에서도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끌어냈고,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 전 원내대표의 국무총리 인선은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박 대통령이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과 20일 국무회의에서 공식인 해양수산부장관 등 "꼭 필요한 부처에 한해 소폭 개각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정홍원 총리의 유임 가능성이 무거워졌다. '이완구 총리설'이 꾸준히 흘러나왔지만, 원내대표 임기를 고려할 때 오는 5월이나 가능할 것이라 해석이 뒤따랐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카드'를 내놓은 것은 정치적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 청와대 비서실 인사내용

직위	정책조정수석	민정수석	민정특보	안보특보	홍보특보	사회문화특보
내정자	현정택(66·경북)	우병우(48·경북)	이명재(72·경북)	임종인(59·서울)	신성호(59·서울)	김성우(56·경북)
현직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부총장	청와대 민정비서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부교수	SBS 기획본부장
학력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 조지워싱턴대 경제학박사, 행시 10회	영주고 서울대 법학과 사시 29회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 사시 11회	고려대 수학과	성균관대 영어영문학과	대일고 서울대 불어교육학과
경력	· 여성부 차관 · 청와대 경제수석 ·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 대검 총수부장 · 부산·서울 고검장 · 검찰총장	· 정보보호학회 회장 · 방통위 미래융합 IT서비스보안연구회장 · 금융보안포럼 부회장	· 중앙정보부 수사실장 · 법조인론인문법학회 회장 · 법조인력양성개선지원위원회	· SBS 정치부장 · SBS 보도국장 · 관훈클럽 편집위원 · SBS 기획실장

'협상의 달인' 불통 논란 잠재우기 '청와대 짙은개편 물타기' 시각도

지난해 문건 유출 파동 이후 최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김무성 대표 수첩 메모 공개 파동,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서둘러 총리 교체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 지지난 주 40% 미만으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주 중반에는 급격히 더 하락했다.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지난 21일 대통령 지지율은 33.2%까지 하락했다. 또 한국갤럽의 지난 21~22일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조사에서는 5%포인트 하락한 30%로 집계됐다. 지지율이 너무 크게 추락하면 국정 동력과 지지율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고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이 당겨질 수 있다. 레임덕 마지노선으로 보는 지지율은 일반적으로 30%다. 해양수산부장관 후임이 결정되지 않고, 청와대 특보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이번 인사를 발표한 것을 보면 총리 후보자가 위기 돌파 카드를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자는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비교적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총리는 물론 부총리 2명 모두 여당 원내대표 출신이어서 청와대와 정부가 여당 위에 군림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가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면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 김문수 혁신위원장, 정몽준 의원, 홍준표 경남지사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실세 총리'를 어느 정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후보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총리 등과 함께 '친박'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내각 내에서 중심을 잡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년 제20대 총선에서 총청권이 승패를 가름하는 지역으로 떠오를 때 이 후보자의 주가는 더욱 오를 전망이다. 때문에 '이완구 카드'는 김무성 대표 견제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직·경찰 거친 3선... 세종시 원안 고수 '朴 신뢰'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 프로필

신임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는 3선으로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다. 1974년 행정고시(15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그는 홍성군청과 경제기획원 등에서 근무하다 경찰로 자리를 옮겨 충북·충남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1995년 민자당에 입당하면서 정계에 발을 디딘 그는 1996년 15대 총선에서 자민련 뒷받침된 충남에서 유일하게 신한국당 후보로 당선돼 주목받았다. 1997년 대선 당시 김종필 전 총리의 자유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옮겨 원내총무와 대변인 등을 역임했으며, 2000년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자민련을 탈당해 한

나라당으로 이적했으며, '철새 정치인' 논란이 일자 2004년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UCLA대 교환교수로 1년여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이어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세종시 수정안에 단식투쟁을 벌이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가 도지사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당시 세종시 원안을 고수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면서 출근 친박으로 분류돼왔다. ▲충남 청양(64) ▲양정고 ▲성균관대 ▲미시간주립대 ▲행시 15회 ▲LA총영사관 영사 ▲충남북지방경찰청 청장 ▲미국 UCLA 교환교수 ▲35대 충청남도 도지사 ▲15·16·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균관대·TK 편중 '탕평 무산' 국민 절반 "이번 인사 미흡" 평가

8명중 4명 경북 출신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3일 인사는 또다시 탕평을 벗어났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정국 쇄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박 대통령의 부름을 받은 8명의 출신 지역을 보면 대구·경북(TK) 출신이 4명이며 지역 편중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나머지 4명은 서울 2명, 충남 1명, 전남 1명 등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 때 '탕평인사 소홀' 지적에 대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살펴보고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인사에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또 유일한 호남 출신인 조진 미래전략수석 내정자는 고향은 광주이나 서울 휘문고를 졸업해 지역정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정홍원 현 총리에 이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이번 정부 들어 총리 자리는 두 차례 연속 성균관대 출신이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신성호 청와대 홍보특보 내정자도 성균관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해 현 정부 들어 중용돼 온 성균관대 출신의 약진 공식이 이번 인사에서도 재연됐다. 인사 명단의 나머지 6명은 서울대가 5명, 고려대

1명 등이었다. 총리 후보자와 청와대 수석 및 특보까지 아울러 이날 발표된 전체 내정자 8명의 경력을 살펴보면 고시 출신은 4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기자 출신은 2명이었고, 정치인은 이 총리 내정자 한 명뿐이었다. 평균 연령은 60.4세였다. 최고령은 올해 72세인 이 민정특보 내정자였으며, 우 민정수석 내정자가 48세로 최연소였다. 이와 함께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청와대 수석 가운데 원년 멤버는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유일하게 남게 됐다. 한편 국민의 절반 가까이 박 대통령의 이번 인사에 대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박 대통령의 국무총리 및 청와대 인사개편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나?"고 묻은 결과, "미흡한 결정이다"는 의견이 48.2%로 나타났다. "잘한 결정이다"는 31.4%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5%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양 출신... 정보통신 연구기관·업체 거친 IT 전문가

조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내정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에 내정된 조진(57)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기술연구원장은 경력 중 대부분을 정보통신 연구기관과 민간 통신회사에서 보낸 IT 전문가로 꼽힌다. 광양 출생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워싱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90년 통신개발연구원 정보통신사업연구실장으로 국내 통신 분야에 발을 디뎠다. 이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산업 연구실장과 선임연구위원을 거쳐 1999년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으로 통신 업계에 투신했다. SK텔레콤에서 정책개발실장, 경영전략실장, 마케팅사업 부부장, 전략기획부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그동안 IMT2000 사업자 선정,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인수 등 회사의 변곡점에서 중요한 결정에 관여했다. 원만한 성격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명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스타일이어서도 직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3년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로 자리를 옮겨 미래융합연구원장을 맡았다. 지난해부터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광양(57) ▲휘문고 ▲서울대 경제학·미국 워싱턴대 경제학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산업연구실장 ▲SK브로드밴드 대표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미래융합연구원장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광주일보 호남예술제 60주년 기념공연

베를린 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

기교적 완성도와 예술적 몰입에 대한 최상의 기준을 제시하는 세계 최정상 '현악 4중주단' 내한공연

2015 Philharmonia Quartet
BERLIN
with the Pianist
CHO JAE HYUCK
VIP 80,000원 / R 60,000원 / S 40,000원 / A 20,000원

주최 **광주일보사** · 아시아문화

주관 **DK3 문화공방디케이비(주)** 후원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에매 문의 062.523.0333